

## 8월 CBSI 68.9로 3개월만에 다시 70선 아래 하락

- 대형업체 지수 7.7p 하락해 CBSI 하락 주도 -

- 2011년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2.2p 하락한 68.9를 기록
  - 올 들어 CBSI는 2개월 연속 상승세(3월 0.9p, 4월 4.8p 상승)를 보인 3, 4월을 제외하고는 한달 간격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65~75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였음.
  - 전월인 7월에는 특별한 건설경기 개선요인이 없는 가운데, 건설공사 비수기인 흑서기로 접어들어 따라 CBSI가 전월비 3.0p 하락한 71.1을 기록했는데, 8월 들어서도 CBSI는 전월비 2.2p 하락해 68.9를 기록함.
  - 이는 8월에도 건설공사 비수기인 흑서기가 지속된 가운데,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이로써 CBSI는 올 들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3개월만에 CBSI가 다시 70선 아래로 하락함.
- 9월 CBSI 전망치는 8월 실적치 대비 5.1p 상승한 74.0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5.1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9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8월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9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및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CBSI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업체 지수가 상승한 반면, 대형, 중소기업 지수는 모두 전월비 하락함. 특히 대형업체 지수가 전월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8월 CBSI 하락을 주도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7월에 전월비 1.3p 상승해 84.6을 기록했는데, 8월에는 전월비 7.7p 하락한 76.9를 기록해 CBSI 하락을 주도함.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경제 여건과 건설경기 악화를 대형업체가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7월 전월비 1.9p 하락한 72.0을 기록했던 중견업체 지수는 8월에는 전월비 3.0p 상승한 75.0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소폭 개선됨.
- 중소기업 지수는 6월까지 3개월 연속 지수상승(30.9p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계절적 요인으로 지난 7월에 전월비 9.2p 하락한 54.4를 기록했는데, 8월에도 1.8p 하락해 52.6을 기록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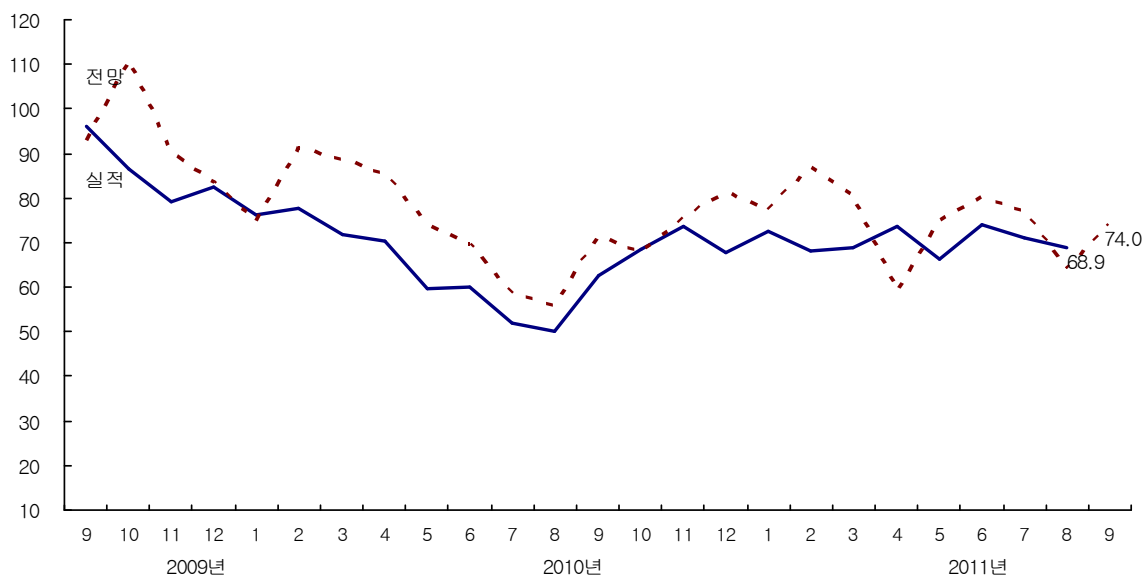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7.2, 95.1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4.5, 66.5를 기록해 그동안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자재비 상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91.0, 91.3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8월 CBSI 전월비 2.2p 하락한 68.9 기록,  
3개월만에 다시 70선 아래 하락

- 2011년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2.2p 하락한 68.9를 기록함.
- 올 들어 CBSI는 2개월 연속 상승세(3월 0.9p, 4월 4.8p 상승)를 보인 3, 4월을 제외하고는 한달 간격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65~75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였음.
- 전월인 7월에는 특별한 건설경기 개선요인이 없는 가운데, 건설공사 비수기인 혹서기로 접어들어 따라 CBSI가 전월비 3.0p 하락한 71.1을 기록했는데, 8월 들어서도 CBSI는 전월비 2.2p 하락해 68.9를 기록함.
- 이는 8월에도 건설공사 비수기인 혹서기가 지속된 가운데,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이로써 CBSI는 올 들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3개월만에 CBSI가 다시 70선 아래로 하락함.

< 경기종합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업체 지수가 상승한 반면, 대형, 중소기업 지수는 모두 전월비 하락함. 특히 대형업체 지수가 전월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8월 CBSI 하락을 주도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7월에 전월비 1.3p 상승해 84.6을 기록했는데, 8월에는 전월비 7.7p 하락한 76.9를 기록해 CBSI 하락을 주도함.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경제 여건과 건설경기 악화를 대형업체가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7월 전월비 1.9p 하락한 72.0을 기록했던 중견업체 지수는 8월에는 전월비 3.0p 상승한 75.0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소폭 개선됨.
- 중소기업 지수는 6월까지 3개월 연속 지수상승(30.9p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계절적 요인으로 지난 7월에 전월비 9.2p 하락한 54.4를 기록했는데, 8월에도 1.8p 하락해 52.6을 기록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0년 10월	11월	12월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8.5	73.7	67.9	72.4	68.1	69.0	73.8	66.3	74.1	71.1	68.9	64.1	74.0
규모 별	대형	91.7	91.7	76.9	92.9	78.6	92.3	107.7	76.9	83.3	84.6	76.9	76.9	84.6
	중견	69.2	80.8	70.4	79.2	73.1	76.9	58.3	66.7	73.9	72.0	75.0	66.7	73.9
	중소	40.4	44.6	54.4	40.7	50.0	32.7	51.8	53.6	63.6	54.4	52.6	46.3	61.8
지역 별	서울	84.4	91.2	75.3	90.5	79.1	82.0	87.9	68.6	77.4	80.2	78.4	71.4	81.6
	지방	45.1	46.6	56.7	46.2	51.2	49.7	53.3	62.9	71.2	57.2	54.6	55.2	62.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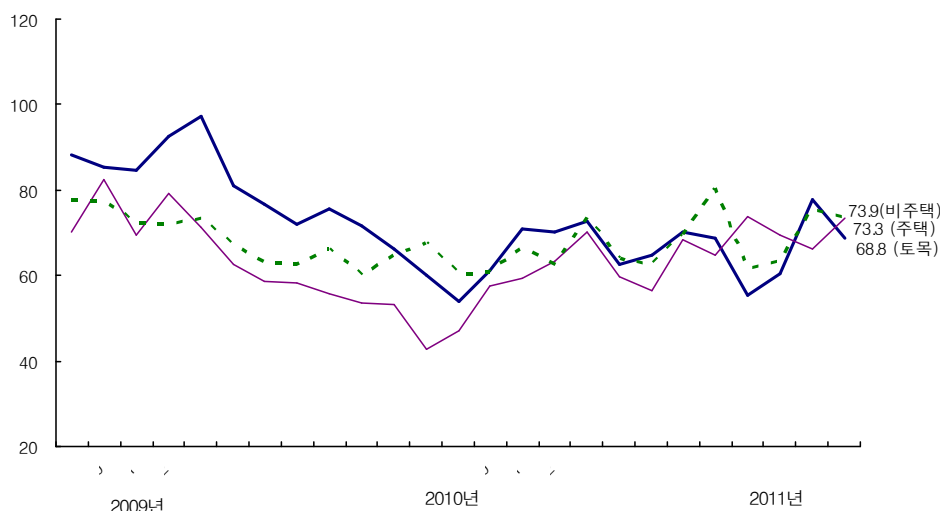
- 9월 CBSI 전망치는 8월 실적치 대비 5.1p 상승한 74.0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5.1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9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8월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9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및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CBSI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8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8p 감소한 78.4를,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2.6p 감소한 54.6을 기록함. 지방업체의 지수가 50선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1.8p 감소한 78.4로, 지수가 한달만에 다시 70선으로 하락하였음.
- 한편, 지방업체 지수는 지난 6월 71.2로 18개월 간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으나, 7월에는 70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전월보다 14.0p나 급락한 57.2에 그침.
- 8월에도 지수가 전월대비 2.6p 하락한 54.6을 기록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임.

### 8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보다 2.6p 감소한 71.3기록

- 8월 공사 물량지수는 여름철 비수기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6p 감소한 71.3을 기록
- 지난 7월 전월보다 4.1p 증가하였지만, 8월 들어 다시 2.6p 감소, 2010년 9월 63.8을 기록한 이후 대략 두달 간격으로 지수가 60과 70선을 반복하는 양상을 지속함.
- 8월의 경우 여름철 장마 등 계절적인 영향으로 전월보다 지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는 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증가(6.9p)해 두달 연속 감소에서 벗어났으나,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 보다 8.8p, 1.9p 감소해 부진하였음.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7월 부진한 상반기 발주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물량의 영향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77.6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8월 들어 다시 물량이 부진하여 전월보다 8.8p 하락한 68.8을 기록, 지수가 한달만에 다시 70선 미만으로 떨어짐.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7월 66.4를 기록해 부진하였으나, 8월에는 서울 및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량이 소폭 증가해 전월보다 6.9p 증가한 73.3을 기록, 두 달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소폭(1.9p)하락한 73.9를 기록함. 하락폭이 크지 않아 통상 경험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는 중견업체가 전월보다 4.0p 증가한 반면, 대형과 중소기업이 각각 9.0p, 2.6p 감소하였음. 특히 대형업체의 물량감소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판단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9.0p 하락한 83.3을 기록함. 주택물량과 비주택 물량이 각각 전월보다 23.1p, 9.0p 증가하였으나, 토목물량이 전월보다 7.7p 감소하였음. 결국 대형업체를 중심으로한 토목물량의 감소가 컸던 것으로 분석됨.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지난 7월보다 4.0p 증가한 76.0을 기록함. 공종별로는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20.8p, 13.0p 감소해 부진하였으나, 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4.2p 증가했음.
  - 한편, 중소기업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2.6p 감소한 51.8을 기록함. 공종별로 모든 물량이 40~50선에 불과해 물량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1.3	83.3	76.0	51.8	77.1	62.4
	전망	76.2	91.7	79.2	54.7	84.7	63.2
토목	실적	68.8	84.6	66.7	52.8	74.0	61.0
	전망	72.6	92.3	69.6	52.8	81.1	59.6
주택	실적	73.3	100.0	75.0	40.0	85.2	55.7
	전망	76.2	83.3	87.0	55.6	81.2	68.6
비주택	실적	73.9	92.3	75.0	50.9	84.7	56.9
	전망	75.3	92.3	82.6	47.1	89.0	53.9

주 : 실적은 2011년 8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9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5.3p 감소한 77.1을 기록하였음. 한편, 지방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7p 증가했으나 지수 자체는 62.4로 여전히 부진하였음.
  - 8월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77.1로 한달만에 다시 70선으로 하락함. 대형업체와 마찬가지로 주택물량이 전월보다 증가(13.2p)하였으나, 토목과 비주택 물량이 전월보다 하락(각각 -14.1p, -0.6p)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62.4를 기록해 4개월 연속 60선에 머뭇. 공종별로는 토목물량 지수가 지난 7월과 비슷한 61.0에 그쳤으며,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해 50선에 불과하였음.
- 2011년 9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여름철 비수기가 끝나는데 따른 영향으로 8월 실적치보다 4.9p 증가한 7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토목 물량지수는 8월 실적치보다 3.8p 증가한 72.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8월보다 1.4p 증가한 75.3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주택 물량지수는 8월보다 2.9p 증가한 7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타공종에 비해 그나마 주택 물량상황이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할 것으로 전망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 상황 매우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7.2, 95.1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4.5, 66.5를 기록해 그동안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자재비 상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91.0, 91.3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금	실적	91.0	107.7	88.0	75.0	93.8	87.3
		전망	84.6	100.0	83.3	67.9	86.3	81.9
	자금조달	실적	91.3	107.7	92.0	71.4	93.8	88.2
		전망	83.8	100.0	83.3	65.5	86.3	81.9
인력	수급	실적	97.2	100.0	92.0	100.0	98.6	96.4
		전망	93.4	92.3	100.0	87.0	98.7	86.7
	인건비	실적	84.5	92.3	88.0	71.4	87.0	81.0
		전망	87.0	92.3	100.0	66.1	92.8	78.3
자재	수급	실적	95.1	100.0	100.0	83.9	98.6	90.0
		전망	98.8	107.7	104.2	82.1	105.4	88.7
	비용	실적	66.5	84.6	68.0	43.6	77.1	50.4
		전망	73.0	92.3	75.0	48.2	84.8	55.2

주 : 실적은 2011년 8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9월 예측지수임.

끝.